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5일 금요일 (음 7월 3일)

제16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정 현안 머리 맞대

4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공무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청주공항 무비자 환승관광객 체류 가능

법무부, '8일부터 전북 추가' 통보... 송 지사 "중국인 관광객 전북 방문 기대"

전북이 청주공항 무비자 환승관광객 체류 가능 지역으로 추가됐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부터 '청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제주 환승객의 관광가능지역에 전북을 추가한다'고 정식 통보했다.

무비자 환승제는 외국에서 국내공항을 경유 환승하는 외국 단체 관광객에게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 지역에서 일정시간(120시간)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고 지난 2012년부터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국내 7개 국제공항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청주공항 체류지역 전북 추가는 전북도가 꾸준히 추진해 온 사안이다.

지난 7월초 법무부 차관이 방문했을 때 송하진 전북지사의 적극적인 건의와 법무부 및 충북도와의 수차례 협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두 달여 만에 빠르게 성사됐다.

사실 전북은 그동안 국제공항이 없고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환승관광이 가능한 공항이 무안공항 한 곳에 불과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비교적 근거리인 청주공항을 통해 무비자 환승 체류가능지역으로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꾸준히 알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청주공항의 해당 지자체인 충북도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을 알렸고 전북도는 충북도청을 직접 방문, 청주공항 이용 중국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체류가능 지역에

전북을 추가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충북도는 '국내의 관광객 유치 등 공동협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전북의 청주공항 관광가능지역 확대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답장,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냈다.

전북도는 이번 무비자 환승제로 연간 100억원의 경제효과와 군산-제주 항공편 증대 등을 기대했다.

예컨대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가 50만7,631명이며 이들 중 약 10%인 5만명이 전북을 방문해 1인당 숙박(8만원), 식비(3식 5만원), 기타 입장료 및 체험, 쇼핑 등(7만원) 총 1인당 20만원의 소비를 예상했다.

또 전북을 관광하는 새로운 여행 루트의 개발로 인지도 상승(전북 홍보효과)과 제고를 기대, 군산-제주 간 항공

편의 증편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전북도는 충북과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무주의 태권도원, 반디랜드, 무주리조트, 반딧불 축제 등과 충북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의 관광자원을 엮어 관광상품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 태권도 수련인이 3,000만명인 점과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무주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이용해 충북과 협업,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청주공항 체류 가능지역에 전북이 추가되는데 동의해 준 법무부와 충북도에 감사사를 표한다"며 "청주공항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광명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원회는 4일 정부 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부처에 특정 농수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정부 관계부처에 "가액을 정할 때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 적용제외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쫓는 데 적용제외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적용제외까지 시행령에 반영

"김영란법, 농수산물 적용 제외를"

국회 농해수위, 정부에 촉구

할 수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법을 시행해 식사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면 한우집이나 횡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전북이나 장어 등이 자라 상품으로 파는데 2년만 걸린단다. 그러면 이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팔 수 있는 시기까지는 이것들을 유예하는 장치를 마련하든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얘기되는 가액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된다"며 "이무리 좋은 법이라도 특정계층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엄연히 알고 예측되는 마당에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정착시키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액 논의 때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이라며 "정부쪽에서 보다 전

향적인 자세를 갖고 이 법의 취지도 살리고 조기 정착시켜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위 위원장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대로 시행되면 국내 민간소비에 분명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사회 구조상 약자인 농수산업업 농가들에게 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시스

***토·일요일신문 읽니다.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의 대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제능과 열정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정통직필의 사명감으로 지역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는 전주매일이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자세를 겸비한 인재를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경력·수습)	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접수기간 2016년 8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4층
문의전화: 063-288-9700(본사 총무팀)
e메일: jjmaeil1@hanmail.net

전주매일

전북도 올 신규 공무원 선발시험

경쟁률 46.5대 1로 높아

경제적 부담 우려 목소리도

전북도 올해 신규 공무원 선발 시험이 4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접수한 2016년 제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38명 선발이 총 1,767명이 지원해 46.5대 1의 경쟁률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49명 선발에 1,907명이 응시, 38.9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보다 8% 이상 경쟁률이 상승한 수치다. 또 최근 3년간 평균 경쟁률이 35대 1로 나타나 '공시'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

지원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가 931명(52.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39명(36.1%), 40대 123명(6.9%)순이며, 10대 62명(3.5%), 50대도 12명(0.7%)이 지원 했고 최고령 지원자는 56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지원자 중 남성은 996명(56.4%), 여성은 771명(43.6%)으로 남성지원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공무원 선발 시험 경쟁률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한번에

합격하지 못하고 두번 세번 응시하는 수험생이 증가, 경제적 부담도 공무원 시험이 낳고 있는 폐단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많을수록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들이 직장생활을 접고 공무원의 길로 들어서서 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공무원 시험 학원 관계자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놓고 인생철학을 '얕고 굵게'에서 '깊고 가늘게'로 바꿨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곤한다"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업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앞으로도 계속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4회 공채시험은 행정업무의 중간역할을 담당할 행정 7급과 지역의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사, 그리고 기술계고교 구분모집 기술직렬 9급도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4회 공채 필기시험은 10월 1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험 장소는 9월 21일 전라북도 홈페이지(알림전북-시험채용-공무원 임용시험)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광명 기자

어린이 행복돌 준비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꿈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